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나와 같은 목사:

제임스 김

목차

추천의 글	5	깨뜨리는 자들	107
서론	7	요나의 하나님 (5)	110
요나의 하나님(1)	9	고난 속에서의 감사	118
요나와 같은 목사, 아밋대와 같은 목사.	24	구원의 확신	125
“일어나...가서...외치라”	26	요나의 하나님 (6)	130
비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31	하나님의 은혜	138
요나의 하나님(2)	35	요나의 하나님 (7)	141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50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150
요나의 하나님(3)	57	요나의 하나님 (8)	155
비신자들에게 은혜를 입는 목사	69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요나 선지자	169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요나의 하나님	73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174
요나의 하나님(4)	81	“하나님, 벌레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178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 졌을 때	91	준비되지 못한 주님의 종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180
고난 속에서의 감사 기도,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96	결 론	185
고난의 유익	100		

/
추천의 글
/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서현교회 김 경 원 원로목사

우리는 책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 수많은 책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물이 귀하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서적들 중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서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더욱이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될 서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James Kim 목사님의 말씀 묵상집을 접하였습니다. James Kim 목사님의 말씀 묵상집은 책의 홍수 속에서 발견한 생수와 같은 말씀 묵상집이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며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묵상집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민 1.5세입니다. 훌륭하신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친이 섬기셨던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국목회 훈련을 위해 수년 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몇 년 간 영어예배와 영

어성경반을 지도하며 큰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 큰 사랑을 주고받았으며 지금도 그 교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애쓰는 James Kim 목사님의 말씀들을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영혼의 유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김 목사님의 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신앙과 삶이 진실하기에 그가 쓴 글 역시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목상입니다. 세상적인 말로서가 아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목상합니다. 목상을 통해 받은 영감을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목상집을 출판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목상집을 추천합니다.

서론

요나와 같은 종이기에...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책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저는 Futato 교수님 밑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Futato 교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요나서 1장을 해석해 주실 때 그분의 통찰력(insight)으로 인해 요나서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후 풀러 신학교에서 Van Engen 교수님에게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요나서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요나와 꼬마벌레”(Jonah and the Worm)[저자: 질 브리스코(Jill Briscoe)]입니다. Van Engen 교수님은 성경책 다음으로 이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책인가 궁금해서 읽기 시작한 이후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서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Futato 교수님의 통찰력(insight)과 Van Engen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계기로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요나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4장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 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요나와 같은 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와 같은 목사도 사랑하고 아끼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은 목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까지 지내오게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묵상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도록 도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쁘게 편집해 준 손사라 자매(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한양 2부)에 감사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바람은 요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8월

제임스 김 목사

요나와 같은 목사임을 인정하면서...

요나의 하나님(1)

[요나서 1장 1-6절 말씀 묵상]

영화들 중에 이름이 비슷한 두 영화가 생각납니다. 두 영화의 제목은 “미션”(Mission)과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입니다. 영화를 비교해 보면 “미션”이라는 영화보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 마음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영화의 결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정글에서 복음(Good News)을 전하다가 고생 끝에 죽임을 당하는 반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죽지도 않고 여러 종류의 과학 기술(technology)을 사용하여 악인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인공이 악인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 주인공이 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예수님과 그 분의 미션을 위하여 희생하며 순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William Chadwick 목사님은 그의 책 “양 도둑질”에서 현대 교회 성도들을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교회 쇼핑객들”(church shoppers)과 “맥도날드 교회”(McChurch).

“교회 쇼핑객들”이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교회에 들어왔다가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 대부분이 교회 쇼핑객들로 가득 차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도날드 교회”는 무엇입니까?

“맥도날드 교회”란 “패스트푸드 그리스도인들”(fastfood Christians)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선택하게 하여 전통적인 가정교회와 그 안에 존재하는 관계 중심적 가치관을 대신해 버린 교회입니다.

마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맥도날드에 들러 햄버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듯이 패스트푸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체인점에 들러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경험을 소비하고는 차를 몰고 나가다가 조금 전에 경험한 관계를 마치 햄버거 포장지처럼 삶의 고속도로에 버립니다.

채드윅 목사님은 이러한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역사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 소비심리가 교회에 대한 헌신의 성격까지 바꾸어놓았다. 교회는 섬기는 곳에서 섬김을 바라는 곳으로 바뀌었다. 한 가족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은 이차적인 문제로 밀려나고 ‘이 교회

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William Chadwick).

여러분은 채드윅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목상합니다.

“요나의 하나님(1)”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미션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입니다(1절).

무엇을 외치라는 말씀입니까? 요나에게 “명한 바”입니다(3:2).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하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명하셨습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기 때문입니다(2절 하반절).

다시 말하면, 니느웨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계 18:5)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사 그의 미션에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죄악된 세상을 쳐서 외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일어나 세상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미션에 겸손히 동참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라도 구원의 미션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요나”(Jonah)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dove), ‘무감각하다,分別이 없다’(senseless)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나의 아버지 “아밋대”(Amittai)란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 나의 성실’(my truth, my faithfulness)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요나서 전체 흐름에 나타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란 비록 요나는 무감각하고分別이 없지만 요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요나에게 진실하시며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요나처럼 무감각하고 무

分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자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감각하고 무分別한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미션에 부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미션에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조건적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고 미련한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 십이만 여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영혼들에 무감각하고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에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

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하며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미션에 동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4).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빌 1:8)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에 대한 확신(conviction)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불성실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미션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미션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안에서 자존감(confidence)을 가지고 담대히 용기(courage)를 내어 하나님의 미션을 일관성(consistent)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completion)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그의 미션에 동참하길 원하시사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거짓말(스스로 속이는 것도 포함)과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사무엘상 15장 22-23절에 나오는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은 이것이었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

되 남녀와 소아와 젓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18절).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불순종하였습니다(9절). 그는 그의 백성과 함께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삼상 15:9).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13절).

사무엘은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쩡이이니까”(14절)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15, 21절).

얼마나 그럴싸한 변명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 변명이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니라...”(22-23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낫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선교지인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낫을 피하려고”란 문구가 3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문구의 뜻은 요나가 편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렘 23:24).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요나 대신 다른 종을 찾아서 쓰셔야 할 것을 생각하고 멀리 멀리 도망갔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니느웨가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테니스).

이스라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 예언했던 요나 선지자(cf. 왕하 14:25, 26)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cf. 왕하 14:24; 호 4; 암 5, 6)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데 하물며 믿지 않는 앓수르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앓수르(수도: 니느웨)를 ‘막대기’로 쓰시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동시대 인물인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cf. 호 1:1, 암 1:1, 왕하 14:23, 24)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반양(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앓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비교: 호 11:5; 암 5:27).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써 애국심을 가졌을 것이고 분명히 앓수르의 멸망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3)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맥아더).

요나는 원수이자 죽어가는 영혼들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의 생각은 니느웨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의 머리로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

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에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니느웨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사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향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음탕한 부인 고멜에 반영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영해줍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영적 상황을 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폭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온전케 하는 폭풍(Storm of Perfection)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27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장시키고자 온전케 하는 폭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단련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2) 둘째는, 징계의 폭풍(Storm of Correction)입니다.

이 징계의 폭풍은 바로 요나서 1장 4절에 나오는 폭풍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사랑하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시고자 징계의 폭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풍”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것입니다(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11절을 보면 다섯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 (a)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6절),
- (b)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6절),
- (c)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10절),
- (d)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11절),
- (e) 우리로 하여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11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대풍을 막대기로 사용하사 그를 징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사공들과 요나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공들[“Sailors”: “salts”라는 뜻]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5절).

사공들은 하나님의 징계인 대풍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4절)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즉, 자기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5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폭풍을 던지셨고(4절) 사공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5절) 말입니다. 웬지 불신자 사공들이 요나 선지자 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더 본받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인 대풍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욱바로 내려갔고(went down), 배로 내려갔고(went down),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went down). 그는 “일어나(get up) 가라”(2절)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행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배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명령을 울려 퍼지게(echoed)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나서(get up)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

게 하시리라 하니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2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옴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간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인 대풍을 만나 배가 파선될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었지만 요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이 들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배가 파선될 정도로 대풍이 임했는데도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도구였습니다[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는 “대풍”(4절)].

하나님께서서는 대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불순종하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를 징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 대풍 속에서 이방인 사공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도 배 밑층에서 졸고 있었던 요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선교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되 내려가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는 내리막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대풍”과 같은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요나”란 이름의 뜻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미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미션에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미션에 동참하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 순종하므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미션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요나와 같은 목사, 아밋대와 같은 목사.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요나 1장 1절).

“요나”(Jonah)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dove),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senseless)입니다. 요나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방향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2절)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3절).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나와 같은 목사는 자기 뜻(멋)대로 행합니다.

반면 요나의 아버지인 “아밋대”(Amittai)란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 나의

성실’(my truth, my faithfulness)입니다. 성경은 “아밋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 요나의 부친이요 드헤벨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왕하 14:25, 은 1:1).

성경 요나서를 묵상하다보면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요나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밋대”(나의 진리, 나의 성실)가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큰 성읍”(2절)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탄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4절)을 일으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뜻)에 순종케 하시고자 자연까지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진바 된 요나(15절)를 위하여 “큰 물고기”(17절)도 예비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사(3:1-2)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습니다[(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밋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밋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1:2)고 명하시면 ‘일어나’ ‘가서’(3:3) ‘외칩니다’(4절).

아밋대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냅니다.

요나와 같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밋대와 같은 목사로 세움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일어나…가서…외치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요나 1장 2절).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 “일어나”

하나님께서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2절).
이 명령대로 요나 선지자는 ‘일어났습니다’(3절).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옴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3절)
또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5절).

깊이 잠이 든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가서 말하였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6절).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 선장을 사용하셔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일어나”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이방인 선장의 “
일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의 메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60:1).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요나처럼 누워 깊이 잠이 들
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말씀
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신자를 통해서라도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가라”

하나님께서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
습니다(2절). 그러나 요나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습
니다(3절).

그는 될 수 있는대로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니느웨의 서쪽에 있
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4절).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야 합니다(마28:19).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지 않고 요나처럼 도망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의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큰 위기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 닥치는 “큰 바람”과 “큰 폭풍” 같은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아성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의 때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혹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큰 성읍” 니느웨 같은 ‘큰 죄’를 깨닫게 된다면 큰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롬5:20). 그리고 우리는 큰 은혜의 힘으로 다시금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욘31-2)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3절).

셋째, “외치라”

하나님께서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욘1:2). 그 이유는 “그 악독이 내(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

종하였고 불순종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4절). 그 때에 이방인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에게 ‘외쳤습니다’(5절). 각각 자기의 신에게 외쳤던 이방 사공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4절).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외쳤습니다’(2:2). 그 결과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3:1-2)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큰 성읍 니느웨로 갔습니다(3절).

그가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4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1:2)고 말씀하셨으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선포했었을텐데 과연 그 선포 내용이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내용이 전부였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1:2).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3:10)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대했던 요나(4:5)는 혹이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봐(2절)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냥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만 외친 것은 아닐까요? 이보다 더 큰 의문은 혹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1:4)과 “큰 물고기”(17절)를 통하여 요나에게 크게 외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고 계셨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너를 아끼느니라’(참고: 4:11)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지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0,000명의 이방인 들보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요나 선지자를 더 아낀 것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 가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 막 6:12)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막16:15).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천상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강력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듣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자로 세움받길 기원하면서...

비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서 1장 5-6절).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하나님(1)”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교회 지도자분들과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미 묵상한 말씀이고 또한 여러 번 선포한 말씀이지만 다시금 공부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여 적어 내려가 봅니다.

그 깨달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신자들을 통하여서도 불순종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5-6절을 보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폭풍(Storm of Correction)을 내리시므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하셨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사공들(뜻: “소금”)과 선장으로 하여금 그의 종 요나에게 다시금 말

씀하시사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2절 상반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신자 사공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신자 사공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종 요나 선지자에게 배가 깨지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배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비신자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배 밑층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비신자 사공인들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후 하나님께서는 비신자 사공들을 사용하사 그의 종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배가 깨지는 위기 가운데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5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불순종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명령에 순종케 하시고자 폭풍을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4절) 비신자 사공들도 배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입니다(5절).

그러나 요나는 폭풍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신자 사공들은 하나님의 행함처럼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았습니까?

요나는 나중에야 제비에 뿔혀서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 것을 선장과 사공들 앞에서 고백한 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2절)고 말합니다. 그 때서야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던지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신자 선장을 사용하셔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사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신자 선장으로 하여금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6절)고 말하게 하심으로 요나를 잠에서 깨우시고 “일어나서”라는 선장의 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인 “너는 일어나…”(2절)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echoing)하셨습니다. 누워 잠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선장의 음성은 하나님의 명령인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2절)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신자 선장으로 하여금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많은 때에 무감각하고 무분별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불순종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듯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풍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분별하여 영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되 우리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변의 비신자들의 예수님을 닮은 행동과 모습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신자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변의 비신자들을 통해서라도 들려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요나의 하나님(2)

[요나서 1장 7-17절 말씀 묵상]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일진데 왜 그렇게 '선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거짓말이 들통 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우기는 모습을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번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을 예로 들면 거짓말을 한 경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끝까지 우깁니다. 이는 정직하게 고백하더라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 가운데는 핑계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을 예로 들면 거짓말이 들춰졌을 때 끝까지 우기기보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

다. 문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니탓'을 많이 하고 일본인은 '내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업이 도산할 때 사장들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한국의 기업체에서 사장이 책임을 자인하면 용서되지 않고 매장 당하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까? 아니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문화, 정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정으로 자기의 죄(잘못)를 고백했을 때에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또한 우리 한국인들은 '내 탓이오' 말하기보다 '당신 탓이오'(당신 때문이야)란 말을 더 많이 합니까? 과연 성도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책임의식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나서 1장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3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하나님은 그의 미션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 (2)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션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 (3)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요나서 1장 7-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요나의 하나님(2)”란 제목을 걸고 요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두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7-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하나님이 내리신 대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 사공들이 각자의 우상신에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자 결국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책임을 묻고자 제비를 뽑게 됩니다(7절). 제비를 뽑는 행동은 그 시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잘못인지 죄를 발견하는 것이요(삼상 14:41-42), 둘째는 신적 인도(에 3:7; 잠 16:33)입니다.

본문에서 이방인 사공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첫 번째 의미인 누구의 잘못인지 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요나와 대조적으로 이방인 사공들은 책임을 묻고자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책임”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4번이나 나옵니다(은 1:7, 8, 12; 4:10).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 다닐 때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방 도시 니느웨의 죄를 책망하러 가지 않으니, 일은 역전하여 이방인들이 요나의 죄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박윤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무책임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자 거짓말이나 혹은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삼상 15:22-23).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13, 20절)을 하고 또한 무책임하게 변명(15, 21절)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무책임하였습니다. 본문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떻게 요나는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것은, 그가 여행으로 인해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심령이 어두워진 까닭이었습니다. 요나의 무책임한 잠입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파선을 염려하여 떠드는데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요나는 깊이 잠들었을까요?(박윤선).

요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길 기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도망가기 바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무책임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 선장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말씀 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이뇨”(6절).

땅 속에 굴을 파고 사는 “설치류”들의 생존 비결을 아십니까? 그들은 후각이 대단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먹을거리를 찾아다닐 때도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집이 작고 방어할 무기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후각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방패가 됩니다. 설치류들 입장에서는 집밖으로 나가도 집안으로 들어와도 온통 자신들을 노리는 적들이 우글 맵니다. 하늘엔 매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신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땅에서는 살쾅이로부터 오소리, 족제비들과 수시로 마주쳐야 합니다. 집안에 들어와도 안심 할 수 없습니다. 뱀은 소리도 없이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들은 잠을 잘 때도 후각만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습니다. 굴 입구로 뱀이 습격을 해오면 굴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

을 타고 뱀의 냄새가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면 잠이 들었다가
도 후각이 작용하면서 잠을 깨고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후각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잠이 들
어도 깨어있어야 하는 기관이 설치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이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곳곳에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유혹거리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쟁터의 지뢰와 같은 치명적
인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독수리 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주목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뱀처럼
소리 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므로 잠들었을 때에도 깨워놓아야 할 것
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
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무책임하게 회피해서는 아
니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를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자 하
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
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요나의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십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면 사공들이 이 재앙[4절: “대풍”(“배가 거의 깨어
지게 된지라”)]이 누구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했는지 알고자 제비를 뽑았습
니다. 그리고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습니다. 그리할 때 사공들은 요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
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8
절).

이 사공들의 질문들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
심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상기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는 말은 요나로 하여
금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상기케 하는 질문입니다(요나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
방인 사공들의 제비를 뽑아 누구의 책임인지 찾고자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비교
해 보십시오).

(2) “네 생업이 무엇이며”란 질문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케 하는 질문
입니다(요나가 자기의 생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불성실했던 것과
이방인 사공들이 자기들의 직업인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안전이 데

려다 주는 것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 (3) “어디서 왔으며”란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지금 향하고 있는 다시스의 반대 방향인 하나님이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를 기억케 하는 질문입니다.
- (4)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란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책임을 기억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공들의 질문들에 요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1장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요나의 답변의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1) 첫째는 요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요 (2)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 (1)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 (a) 첫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입니다. 이 요나의 고백은 이방인들도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b) 요나의 둘째 고백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입니다. 이 고백 내용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였

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겠는가?란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행동과 고백은 불일치하였습니다.

(2)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고백도 두 가지입니다.

- (a) 첫째는, “여호와”, 주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요나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이 고백 또한 언행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 (b) 둘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요나 자신이 당면한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다의 풍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이방인 사공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요나가 도망을 가는 도중 하나님의 징계인 폭풍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배 안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까?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었던 비신자 사공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요나 1장 10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와 닳을 피함 인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9절의 요나의 고백에 나오는 “경외”란 단어와 똑 같은 뿌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 10절에선 두려움 또는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란 단어는 요나서 1장에만 세 번이나 나옵니다 (5, 10, 16 절).

요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듣고 실지로 보이는 바다의 폭풍을 통해서 이방인 사공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9절)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을 갔지만 이방인 사공들은 바다의 폭풍과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10절)라고 꾸짖습니다. 결국 죄를 범한 선지자는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꾸지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 사공들에게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우선적으로 받은 벌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꾸지람 곧,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이 그 때에 요나의 양심을 분명히 찔렀을 것입니다.

(2) 자연의 반응입니다.

요나 1장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요나가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풍량은 몇지 않고 도리어 더욱 흉흉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회개는 입을 열어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폭풍은 결국 이방인 사공들에게도 피해를 준만큼 그 흉흉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선 요나에게 결정적인 회개의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요나 1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에게 향한 사공들의 질문은 죄인인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고백함에서 끝나지 않고 결정적인 회개의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줄
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고”(12절)란 단어와
“인하여”(7절)란 단어가 똑 같은 단어란 것입니다. 7절에서 누구의 책임인
가를 알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절에 와서야 요나는 자기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므로 진정으로 사공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
기의 책임으로 인하여 온 큰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선 자기를 바다에 던
져야 함을 알았기에 이방인 사공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회개의 행동을 보면서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이란 글
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진취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경
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자
기 관리에 대한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온갖 잘못된 건강속설이 난
무하는 현실에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간단한
습관이 건강의 주춧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따뜻한 물(40도)에 3분, 찬물(18도)에 1분 정도 하는 온
냉교대법을 2~3번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
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전통적 민간요법인 목욕에 대한 인식
이 새로워지고 있다. 예로부터 목욕은 몸의 피로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피로회복제와 긴장 완화제로써 널리 애용되어 왔다.

그리고 목욕은 혈액순환을 원활 하게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
고 피부 호흡을 촉진시켜 준다. 특히 온냉교대법의 경우 모세혈관
의 팽창과 수축을 극대화 시켜 전신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 혈관
을 더욱 젊고 싱싱하게 해준다.

또한 땀을 충분히 흘리게 해줌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른바 온
동효과가 있다. 그러나 뜨거운 탕욕이나 사우나에 장시간 노출되
는 경우 몸에 무리한 자극을 주어 체력소모와 부작용을 유발할 염
려가 있다.

신앙생활에도 정기적인 목욕은 필요하다. 자백과 참회가 없는 신앙
생활은 무기력 중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마비되고서야 어찌 생동감 있는 영적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불완전한 인간이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왜곡된 인격을 가진 이웃
들과 부딪치며 살아가는 한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진흙바닥에 넘어진 어린이가 곧
바로 부모에게 달려가듯 죄를 깨달은 즉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잘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탄력 있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크리스천
의 증거가 아닐는지.

고백은 우리의 일이고 용서와 깨끗케 해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죄 고백의 깊이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
가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곧 자신이 얼
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라는 한 원로목사님의 설교가 컷가에
쟁쟁하다”(황성주 박사).

여러분, 사죄의 확신 성경구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들춰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우리에게는 요나처럼 회개의 결단뿐만 아니라 회개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온 피해를 볼 때에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한 “큰 폭풍”은 잠잠해 질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니이다”(눅 23:3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크고 많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한 나의 불순종의 죄를 고백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 1장 7절).

과연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젠가 저는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에 요나서 1장 7-1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 질문들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 (1)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진실 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 (2) 다른 사람을 비난(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 (3) “내 탓이로소이다”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보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탓)하면서 각자 우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악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악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악된 경향을 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남을 탓하고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책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무책임한 자세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무책임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요나서 1장 7-1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그 깨달음이란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게(2-3절) 징계의 폭풍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4절) 요나는 무책임하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5절).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면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비신자 선장과 사공들 앞에서도 죄를 고백

케 하시며 회개의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 있는 행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무책임하게 깊이 잠든 요나 선지자에게 어떻게 책임 있게 행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비신자) 사공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사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인정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이 제비를 뽑아 자기들이 만난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하였나 알고자 했을 때 요나로 하여금 제비 뽑기에 당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인정케 만드셨습니다(7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의 네 질문들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들춰내셨습니다. 그 4 질문들이란 이것입니다:

(a)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8절).

이 첫 번째 사공들의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온 재앙임을 인정케 만드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폭풍이 임하여 배가 다 거의 깨지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접한 환경을 탓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탓할 사람은 자기 자신 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b) “네 생업이 무엇이냐”(8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네 생업이 무엇이” 나라고 질문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지자적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상실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c) “어디서 왔으며”(8절).

이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를 기억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니느웨로 가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으로 도망하고 있었기에 이 이방인 사공들이 “어디서 왔으며”란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d)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8절).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책임을 기억케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비신자들의 질문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불순종하고 있는 범죄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국은 인정케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결국 요나는 이방인 사공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였

습니다.

즉,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9절) “자기가 여호와의 낚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 습니다(10절). 그 때 사공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10절)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심에 찢리는 비신자들의 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흥흥해질 때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11절). 그 때 요나의 대답을 들어 보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2절).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 사공들이 큰 폭풍을 만난 것임을 알았기에 그리고 흥흥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방법은 오직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나는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방인 사공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도 사용하셔서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동을 들춰내시사 결국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불순종함을 인정케 하셨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비신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죄를 인정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책임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비신

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되어 그 배의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비신자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폭풍”이 임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요나처럼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사공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입술로 자백하는데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했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비신자들에게까지 임한 “이 큰 폭풍”(12절)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할 때 흥흥한 바다는 잔잔케 될 것입니다(15절). 그리할 때 이방인 사공들처럼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16절).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17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2:4)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말미암아(1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10절).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회개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개자로 만들어 주시길 기원하면서

요나의 하나님(3)

[요나 1장 11-17절 말씀 묵상]

21세기 선지자로 불렸던 고 에이든 토저(A. W. Tozer)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worshiper)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worker)로 만드신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요 4:23)가 되기 힘쓰기보다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리고자 분주히 신앙생활(눅 10:40)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being)와 “행함”(doing)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에서 나

와야 합니다. 성경에는 참된 예배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신격)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러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죄로 밧세바와 동침하여 난 첫째 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후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욥기 1장 20절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재물과 자녀들까지 다 잃고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행하심(행동)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사공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바다의 뛰노는 것이 그친 것을 보고 사공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예배(“재물”)를 드렸습니다(욘1:16).

저는 오늘 본문 요나 1장 7-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요나의 하나님(3)”란 제목을 걸고 요나의 하나님은 셋째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요나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셋째,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는 사공들로부터 면책을 받고(1:8-10) 어떻게 해야 바다가 그들을 위해 잔잔하게 될 것인지 질문을 받습니다(11절). 그 때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였습니다(12절). 그 이유는 사공들이 큰 폭풍을 만나 이유가 다름 아닌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사공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 사공들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여기서 “돌리고자”란 단어의 뜻은 “to bring back”(되돌리다), to return(되돌아가다), to repent(회개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사공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나가 사공들에게 고백한 것은 요나의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고 하였는데(9절) 사공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위에서 폭풍과 싸워서 배를 되돌려 하나님이 지으신 육지로 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를 통하여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무지함 가운데서 사공들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

기려고 하였습니다. 이 “돌리고자”란 이 단어는 요나서 3장 8, 9절에 또 나옵니다. 요나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떠날 것이라” 단어는 ‘포기하다’ 즉, ‘회개하다’란 뜻입니다. 니느웨 왕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였습니다(7절). 이러한 니느웨 왕의 행동은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하여 임할 때에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모습은 웬지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들이 힘써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했고 사공들은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요나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후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사공들이 하나님의 뜻인 요나가 바다에 던진바 되는 것을 돌이키고자 힘써 노를 저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왕은 자기 백성을 위했고, 사공들은 요나를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뭔가 니느웨 왕과 사공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했던 반면에 요나

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이방인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의 약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던 선장과 사공들을 아끼지도 아니했던 반면에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은 요나 한 사람을 아끼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사실을 알고도 요나를 탓하지 않고 살려보려고 흥흥한 바다와 싸우는 이방인 사공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웬지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보다 이방인 사공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본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1장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흥흥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비록 사공들이 하나님이 던지신 대풍을 이겨서 요나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점점 더 흥흥해졌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다가… 점점 더 흥흥하므로”란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이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문장에 흥미로운 히브리어 단어는 “continuing”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다의 흥흥함이 지속적이며 점진적임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2) 사공들은 기도했습니다.

요나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 이다 하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방인 사공들의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나 1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던 이방인 사공들이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5절과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사용된 ‘부르짖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다른 단어입니다. 요나 1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을 때 쓰인 단어는 무엇인가 필요해서 구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 오늘 본문 요나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인 ‘부르짖다’란 단어는 1장2절(“...그것을 쳐서 외치라”)과 3장4절(“...외쳐 가로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께 선포(proclamation)하는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 1장 6절에서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일어나...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였는데 거기서 쓰인 단어 “구하라”는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쓰인 “부르짖어”와 똑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이방인 사공들이 요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이(사공들이) 요나와 이야기하는 중, 본서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여호와 종교에 대한 사상을 그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제 생각엔 9절에서 요나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공들에게 알려 준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장 14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박윤선 박사님 말대로 요나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와 사공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하여 더 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측이 맞는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공들이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9절에 나타난 사공들을 향한 요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된 것을 확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방인 사공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였습니다(14절). 이것은,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말아달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범죄의 응보로 판단하시며 또한 그 사람은 재판에 상소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볼드윈). 이방인 사공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14절).

여기서 “무죄한 피”란 말은 “요나가 사공들에게는 잘못된 일이 없었으니 만큼, 이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셈이란 말입니다(박윤선). 1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방인 사공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할 때 요나를 바다에 빠뜨

려 죽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꼭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사공들의 세 번째 반응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서 ‘던지다’란 단어는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던지시매”(4절), “사공들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5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2절),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매”(15절).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던지시므로 결국엔 사공들을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뛰노는’(맹렬한, 격노한)란 단어가 바다에 쓰인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는 분과 화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다는 거의 인격화되어서 그의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험악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은 바다를 사용하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므로 맹렬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로 하여금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

까? 오늘 본문 요나 1장 1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바다의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대작하였던 폭풍이(4절), 맹렬한 폭풍이 요나를 삼킨 후 잠잠해졌습니다(15절).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실을 확정시켜 줍니다.

(4) 사공들의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란 단어는 요나 1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1:5),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1:9), “심히 두려워하여”(1:10),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1:16).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방인 사공들에게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그의 행동을 볼 때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방인 사공들은 대풍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다가 요나의 고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16절에 와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바다가 잔잔해 지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요나와 사공들 중 누가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공들은 진정한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사공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1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기서 ‘예비하다’란 단어는 요나 4장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4:6),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4:7),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4:8).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 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이방인 사공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그 사공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책임을 지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흥흥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이방인 사공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케 하셨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패하게 하시사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순종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공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1:9). 결국 이방인 사공들은 귀로만 듣던 창조주 하나님을 씨름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로 하여금 매트 레드먼(Matt Redman)의 “마음의 예배”(The Heart of Worship)란 복음성가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셨습니다.

(1절) “찬양의 열기 모여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후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
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세움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요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신자들에게 은혜를 입는 목사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 1장 13절).

언젠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주신 깨달
음이 있어 글을 적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있었던 요나로 하여금 불신자들인 이방인 사공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
을 알려주므로 말미암아 요나 또한 그의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었던 요나로 하여금 불신자들
인 이방인 사공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공들이 요나에
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요나 1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
나는 자기 때문에 이방인 사공들이 큰 폭풍을 만난 줄 알았기에 그들에게 “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2절)고 했지만 그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를 바
다에 던지기보다 오히려 그를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

리고자 했습니다(13절). 이것이 왜 은혜인가 하면 사공들의 입장에서 요나로 인하여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기에 마땅히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함께 있는 모든 비신자들이 고생을 할 정도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면 그 비신자들은 그 목사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는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너 때문에…”라고 원망하면서 그 목사를 바다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비신자들이 그 목사를 바다에 던지기보다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신자 사공들이 주님의 종인 요나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좀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종인 요나가 비신자 사공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상적이 않은 불순종하는 요나, 즉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나로 하여금 비신자 사공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과연 요나는 자기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마음으로 알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입니다. 그 대답은 “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후(요나 2장) 구원을 받아(9-10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3:1) 니느웨로 가서(3절) 그 성에 들어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친 것을 보면(4절)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 요나는 자기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자(3:10) 요나는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4:1)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니이다”(2-3절).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요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지 못한 종이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심히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요나의 성냄이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하는 종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비신자 사공들을 통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마음으로 심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

회를 주었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 셧 때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인 주님의 종입니까?

왠지 저는 이 요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주위에 신자들과 비 신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제 전 도 대상자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갠 길에 없기에 저는 그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사랑하는 비신자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 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는 종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종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새찬송가 310장 1절)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요나의 하나님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1장 15절).

이번 주 저는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From Embers to a Flame: How God Can Revitalize Your Church)[저자: 해리 L. 리더(Harry L., III Reeder)]라는 책을 읽다가 ‘기도와 예정’(Prayer and Predestination) 부분에서 읽는 것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말하 고 있는 기도와 예정의 연관성을 저의 마음에 자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와 예정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식구 들에게 도전했던 기도 방식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 방식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proclamation)하며 나아가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섬기는 승리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내 교회를 세 우리니...”)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겠다 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곤 함

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5절(오병이어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갑니다.

비록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와 같은 참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서 항복(surrender)하며 나아가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애쓰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리더 목사님의 ‘기도와 예정’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저에게 있어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리더 목사님의 글은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저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저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고 계심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큰 힘이 되었고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입은 후 저희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모임 때 요나서 1장 7-17절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걱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다시한번 공부한 요나서 말씀을 토대로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요나의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사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이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욘1:2).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보다 그 주신 사명의 불복종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3절).

아마도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목적지인 니느웨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니느웨로부터 멀리 멀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 생각에 멀리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고 다른 종을 들어 일으켜 쓰실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무너트리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종 요나를 사용하시사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하여서도 걱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도망가는 요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었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거의 깨어지도록 대풍을 바다에 던지시므로 폭풍이 대작하게 하셨습니다(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폭풍을 요나에게 내리신 이유는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을 쳐서 외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자고 있었습니다(5절).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불순종하는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이방인 선장을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상기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 선장은 잠자는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6절)고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말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인 “너는 일어나…가서 외치라”(2절)를 생각나게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 도망갔고 또한 도망가되 다시스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또한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누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의 말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니느웨로 가기에 앞서 요나는 징계의 폭풍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방인 선장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공들도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깊이 잠들어 있었던 요나 잠에서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물론 요나는 잠에서 깨어 선장의 말대로 곧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요나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에 가서야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음) 이방인 사공들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이방인 사공들 앞에서도 자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했는지 알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 것입니다(7절). 그 때에 사공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8절)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들이 분명히 요나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공들이 요나에게 “네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9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고 있었어야 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순종하는 주님의 종의 양심을 찌르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사공들이 자기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라는 물었을 때 요나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 인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2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이방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요나, 결국 요나는 “여호와와 함께 피할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10절). 이렇게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향하신 걱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걱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요나로 하여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2절)고 이방인 사공들에게 말하게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입술의 자백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의 행동을 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때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습니다(13절).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12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창조주 하나님께 ‘씨름’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를 힘써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
고자 했을 때 바다로 하여금 더 지속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흥용하게 하
신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요나처럼 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징계의 폭풍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배만 거의
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폭풍도 일으키시되 우리가 입술의
죄의 자백과 더불어 회개의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폭풍이 점점 더 흥용하여 절대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흥
용한 바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
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임한 폭풍은 점점 더 흥용해 질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 사공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9절)께 백기
를 들고(항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1장 14절에서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이
방인 사공들이(5절) 14절에 와서는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
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도 이방인 사공들
에게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고(9절) 또한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자신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말미
암아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신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할
요나, 그러나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를 사용하시사 배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포케 하시고 또
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걱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만 역사하고 계셨던 것
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하여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셨

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까?

결국 이방인 사공들은 더 이상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13절) 요나의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고 기도한 후
(14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15절). 그 때 바다는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15절). 그 흥용한 바다가 요나를 삼키더니 즉시 잠잠해 졌
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일으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
명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
여 돌이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
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징계의 폭풍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내리막길 신앙생활 속에서 배 밑층까지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폭풍조차도 모르
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
고 요나에게 말한 이방인 선장의 말처럼 우리는 잠자는데서 일어나 하나님
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
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죄를 자백해서
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
리에게 회개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흉흉한 바다와 우리 마음에
흉흉한 바다는 즉시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자를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나의 하나님(4)

[요나 2장 1-10절 말씀 묵상]

이랜드 회사의 “직업 속의 어려움”이란 글을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처럼 보이는 직장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일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일이 주는 어려움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
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직장을 소원하지만, 일속에서의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며, 죄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인터넷).

하나님 안에서 직업의 의미를 정리한 부분 6가지입니다.

- (1)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훈련시키시고 성공하게 하는 수단
- (3)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수단
- (4)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게 하는 수단
- (5)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수단

(6) 죄를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수단입니다(인터넷).

여기서 다섯째와 여섯째의 의미를 통해 볼 때, 직업 속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죄를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직업의 의미를 찾는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면 직업 속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10절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기도”란 단어의 히브리 원어 “이트팔렐”은,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삼상 2:1; 삼하 7:27)(박윤선). 요나가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회개를 하였기 때문이요 (2) 둘째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나 2장 1-10절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요나를 통하여 도전을 받길 기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은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라는 책에서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극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고, 자유이며, 고통의 극복입니다(인터넷). 고통을 대한 우리들의 처음 반응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란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옥한음 목사님이 쓰신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보면 옥 목사님은 ‘고통은 포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임을 믿습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의 던진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1:15).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 2장 3절에선 주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바다에 대풍을 던지시고 그 대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실 것을 사공들에게 요나의 고백을 통해 알려 주시사 사

공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요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징계의 폭풍’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히브리어 “min”(…에서)를 무시하면 아니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한 3번 나옵니다: (1) “From inside the fish”(물고기 뱃속에서)(1절), (2) “In(from) my distress”(고난을 인하여)(2절), (3) “From the depths of the grave”(스올의 뱃속에서)(2절). 이 세 문구는 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란 다름 아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 두 “min”문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좁음”과 “공포”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는 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공포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란 말씀은 혹은 지상은 팔레스타인 매장 동굴의 본을 딴 지하의 동굴로 상상되었습니다.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갇혀서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속 바다에 던지시므로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6절). 요나는 어느 면으로 보면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있는 물고기 안에서 그는 감옥과 같이 갇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동사들인 “돌렸으니,” “에웠고,” 그리고 “쫓나이다”는 요나가 감금의 공포에 휩싸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소망이 없이 이 모든 일에 뒤엎히게 되었습니다.

(2) 요나의 두 번째 고난은 ‘주님의 파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파도’라는 말은 실상 깨뜨리는 자들(breakers)이라는 뜻이니 곧,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이룹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구들인 대풍이나 선장, 사공들을 통해서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부서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88편 7절을 보십시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또한 성경 시편 42편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3) 요나의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쫓겨나다’란 단어는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 요나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과 강박한 마음에서 회개치 않으려는 가운데서 받은 징계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고난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느낌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진 듯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한 느낌 속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43:2),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옥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44:9).

(4) 요나의 네 번째 마지막 고난은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서 ‘피곤하다’란 단어의 뜻은 ‘쇠퇴해가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극도의 낙심 지경에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지경은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혹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이 3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극도의 낙심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웬(Henry Nowen)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에 대에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픔을 맛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은 고통과 아픔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부인(deny)도 해보고 무시(ignore)도 해보고 또한 원

망 및 불평도 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춤의 첫 스텝인 것입니다.

춤의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춤의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부정하는 데 쏟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춤의 네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나우웬).

여러분, 고통은 성숙을 가져옵니다. 어거스틴(Augustine)은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 고난 중에 영혼이 더욱 고상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의 삶을 힘쓰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고통은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과도 같고, 죽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래를 씹는 고통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 지는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시119:71).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7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그릇행하다가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67절).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
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왜 요나는 자기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
까?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동서남북이 같이 물고기 뱃속
에서 자기의 죄인임을, 그리고 자기의 불순종을, 특히 요나는 여호와의 낮
을 피한 죄(1:3, 2x)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낮
을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
에게 임한 부르심과 사명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1:2)를 듣기를 피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되 될 수 있는 대로 지리학적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지명하신
니느웨와 거리를 많이 두고자 한 결과로 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
님께서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셨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느
낌 가운데 요나의 결심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
겠다 하였나이다.”

언젠가 제 신앙생활 속에서 저의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기도

도 드리지 못하므로 제 자신에게 실망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가 있
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말씀 중 특히 “yet I will look
again…”(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란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 속에서 그의 영혼이 극도로 낙심
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흥미
로운 점은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어느 정도로 내려갔는가 하면 깊은 속
바다(3절)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6절)을 때에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내리막길 신앙생활을 하
면 할수록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
의 이 결심은 저로 하여금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
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
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인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

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Salvation comes from the Lord)(욘2:9).

나를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 졌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

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 2장 1-2절).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앞으로 나아질꺼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현재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 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꺼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며 현실의 당면한 상황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죽으면 우리는 비록 살아 숨 쉬고 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망을 살려 놓으려고 발버둥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려두려고 노력했던 소망마저도 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던 요나가 결국 이방인 사공들에 의해 바다에 던진바 되어(1:15) 큰 물고기 뱃속에서(17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나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란 단어(히브리 원어: “이트팔렐”)는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삼상 2:1; 삼하 7:27). 어떻게 요나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내리신 대풍(1:4)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배를 함께 타고 있었던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에게도 피해를 주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이방인들 앞에서 자백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행동을 보이게 하시사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요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게 하셨습니다(2:3). 이제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케 하신 은총을 생각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졌지만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므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 요나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고난 가운데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와 닳을 피하려고”(1:3)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내리신 대풍으로 인하여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요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2:9). 그는 자기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야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9절).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인데, 아직 그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의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요나와 달리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10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참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 내 주실 것입니다. 승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찬송가 539, “이 몸의 소망 무언가”(3절)],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깊은 수렁이와 같은 침체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면 간구하길 기원하면서

고난 속에서의 감사 기도,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요나 2장1절).

어떻게 요나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에 던진바 된 요나(1:15)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17절)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구원은 물에 빠져 가는 사도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31-32절). 그래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혼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지만(29-30절) 예수님께 건짐을 받은 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까지

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걷는 경험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요나를 “배”[거의 깨지게 된 배라 할지라도(1:4)]에 올라가게 하신 것(3절)이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17절). 어느 누가 이런 구원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난 속에서(바다에 던진바 됨) 또 다른 고난 속으로(큰 물고기 뱃속) 건짐을 받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베드로처럼 배로 건져주시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건져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온전히(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욥 5:9, 37:5) 제 생각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1:2)에 불순종하였을 때(3절) 불순종의 길을 내리막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였습니다(1:2) 그러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고’ (3절) 더 나아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5절) “깊은 속 바다”(2:3)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6절) 이렇게 불순종의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큰 물기 뱃속에서 기도케 만드시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2:9)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베드로처럼 배 위로 건짐을 받았으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겠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고 깊은 바다 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멀고 멀리 느껴질 수 있는 주님이 계신 “주의 성전”(4절)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에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배 위에서가 아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 귀한 깨달음 속에서 아직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1절).

우리도 요나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를 향하신 고난의 뜻(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미리 드려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현재에 믿음으로 기념하길 기원하면서

고난의 유익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요나 2장 2절).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한 네 가지로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4 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스텝 4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기보다 부인(deny)하려고 하던지 무시(ignore)하려고 하던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려고(suppress)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 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2)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 일까요? 원인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직시하던지 안하던지 할 텐데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할 뿐더러 설상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원인을 직사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3)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부정하는 데 쏟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둡고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의 터널에 들어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치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의 요나가 겪은 고통을 4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의 고난은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은 “스올의 뱃속”이었습니다(2절). 어두컴컴한 동굴 처럼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바 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바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물론 이것은 바로 왕의 생각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지만). 찬송가 539장 3절 가사처럼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둘째, 요나의 고난은 주님의 파도였습니다.

요나 2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파도’란 실상 깨뜨리는 자들(breakers)이라는 뜻으로써 곧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이룹니다(박운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부서트리시고 계셨습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만 깨뜨리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1:4)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셋째, 요나의 고난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나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

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멀리 떠나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도우심이 없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육신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주님의 파도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마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 어두운 방안에 갇혀 있는 것과 아버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나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 받았다는 느낌이 더 괴로운 것처럼 어떠한 징계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15:34)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넷째, 요나의 고난은 그의 영혼이 피곤해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 2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서 ‘피곤하다’란 단어의 뜻은 ‘쇠퇴해가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는 극도의 낙심 지경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지경은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혹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이 삼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극도의 낙심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적 무기력함과 전적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여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대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누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고난의 유익을 겸손히 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 중에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기원하면서

깨뜨리는 자들

“주께서 나를 깊은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요나 2장 3절).

가정을 깨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깨뜨리고 있으며 부인도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식들까지도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도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때문에도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다들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다들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깨뜨릴 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교회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젠 장로님의 부인들인 권사님들까지도 뒤에서 교회를 깨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젠 안수 집사님들까지도 함께 들고 일어나 교회를 깨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엔 온통 다 깨뜨리는 자들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우기보다 자꾸만 무너

트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트리고 교회까지도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하는데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깨뜨리는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인생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3절을 보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 위에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파도”에서 “파도”라는 단어의 뜻은 실상 깨뜨리는 자들(breakers)입니다. 그리고 깨뜨리는 자들이란 곧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이룹니다(박윤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구들인 대풍이나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을 사용하셔서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큰 물결이 그를 들렸을 그 때서야 그의 강박한 마음이 깨지므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던 요나가 드디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큰 물결과 파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깨뜨리는 심령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자들만이 겸손히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을 세우고 영적 가정인 교회를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깨뜨리시

고 계십니다. 깨뜨리시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선포케하여 범죄자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님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도 화평케 하시고 계십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깨져야 합니다. 주님의 큰 파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에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깨뜨러지고 또 깨뜨려져서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들려 주시길 기원하면서)

요나의 하나님 (5)

[요나 2장 1-10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요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성읍을 쳐서 외치라(1:2)고 명하셨는데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이런 저런 고생을 한 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욘2장).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과연 감사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한 숨 쉬면서 한 번쯤 발버둥 쳐보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본문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란 문장을 보면 거기 나오는 기도’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인 “이트팔렐”인데 그 단어는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요나 2

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요나의 하나님 (5)”로 잡고 한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입니다. (2) 둘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로 서 말미암아나 이다.” 현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기도를 우리는 한 2가지 좀 분석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요나의 기도는 과거 구원의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 1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진바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

비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 과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 요나의 기도는 미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 요나 1장 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처해있는 상황인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서든지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고자 앞으로 또 구원해 주실 것을 요나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구원의 확신, 소망을 생각할 때 바울의 견고한 소망을 나타내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2장 1-2절에서 히브리어 “min”(…에서)이란 단어의 3번 나타남의 연관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 “From inside the fish” (물고기 뱃속에서)(1절), (2) “In(from) my distress”(고난을 인하여)(2절), (3)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스올의 뱃속에서)(2절). 이 세 문구는 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

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깊음 속 바다 가운데”(the deep, the very heart of the seas)(3절), “산의 뿌리, 구덩이”(to the roots of the mountains, the pit)(6절). 깊고 깊은 “구덩이”(v.6) 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뜨거울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인 구원의 경험은 얕은 구덩이 보다 더욱더 놀라울 것입니다. 요나의 그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요나처럼 동서남북 간혀있고 전혀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나서에 나타나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간증을 들어 보십시오. 요나서에 3번 나옵니다.

- (1) 첫 번째는 사공들의 구원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대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 홍홍한 바다에 배가 침몰하여 죽을 뻔 한 상황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므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구원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 9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 (3) 마지막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얻은 구원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나서 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간증들 3개를 들어 볼 때 제 생각엔 번째인 요나의 구원의 간증이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방인 사공들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의 간증들은 궁극적으로 요나의 구원의 간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사공들의 구원은 요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은 요나의 구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구원 경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간증인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를 고백케 하시사 결국은 3장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요나는 자기의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만난(체험)한 구원자 하나님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자기 같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얻은 구원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욘 2:9). 언제 요나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해 주시면, 즉 구원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위기에 있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2장 8-9절을 보십시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기 8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우상들에게 숭상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 지도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오직 자기들을 숭배하는 자들만 속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우상들은 빈껍데기 일 뿐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볼드윈)[단어 공부(8절): 우상 숭배자들 à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음.

(1) “헤벨” à 속히 증발하는 호흡; (2) “썸” à 텅 빔, 공허]. 그러나 요나는 9절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대조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상실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였기 때문입니다[단어 공부(9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God worshippers) à 한 단어로 묘사되고 있음: “은혜” à 신실한 사랑, 공훈, 인자란 뜻(의미)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킴].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다녔던 자기의 전의 삶, 즉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삶을 기도하는 중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면서 그 삶이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빔처럼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호 4:12; 암 5:26).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면서(2:7)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므로(2:4)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기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좇았던 어리석은 죄를 보게 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대조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요나서 1장 16절을 보면 사공들은 먼저 요나의 하나님께 제물(제사)을 드렸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하나님, 즉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1:9)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공들의 두려움이란 요나가 1장 9절에서 말 씀하고 있는 “경외”와는 다른 뜻입니다.

사공들은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공포심에서 두려워하기보다 감사의 노래로 제사(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언젠가 단기 선교 팀 멤버 중 한 자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기도 5개 기도 제목 중 2개가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길 열어 주(시)기를.”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 중 대다수가 미래의 대한 기도제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상하게 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상반 절 말씀이 저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영문을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헬라이어 번역: 형제들이여 당신의 부르심을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많이 남은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가운데서 한 번쯤 멈추어 서서 과거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잠겼던 순간, 아무 쓸모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고전 1:26)으로 볼 때에 미련하고 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기원하면서)

고난 속에서의 감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 2장1, 9절).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로 신음하며 상처와 눈물 속에서 허덕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까지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누구 탓이라도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탓, 상황 탓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잘 탓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사람은 더욱더 이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 되면 우리는 고난이 자기 자신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이기적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

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나 2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1절),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 위에 넘치는 상황에서(3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속과 그의 영혼이 그의 속에서 피곤해 가는(쇠퇴해져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요나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 지운바 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요나는 오늘 본문 요나 2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란 문장에 나오는 “기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트팔렐”인데 이 단어는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삼상 2장 1절과

삼하 7장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나는 현재 자기가 당면한 고난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큰 물고기를 흉용한 바다에 던 지운바 된 자기를 삼킨 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구원은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요나 3장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요나 2장에서 즉,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고난에서 또 다른 (더 큰)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과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 당면한 더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그 다음 날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습니다(25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었기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장1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요나 선지자도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져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히13:8). 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에 아무리 절망처럼 보이는 “큰 물고기 뱃속”같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절망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2장8-9절을 보십시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라.”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란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헤벨”과 “씨”인데 그 의미는 “헤벨”은 “속히 증발하는 호흡”이란 의미요 “씨”는 “텅 빈, 공허”란 의미입니다. 즉, 우상들은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거짓되고 헛된 물질을 숭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버린 후 주일 교회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주일 주님의 전에 감사하므로 올라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상 숭배자들(idol worshippers)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것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God worshippers)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히브리어: “헤세드”) 가운데서 베풀

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므로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 부터 도망가고자 했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시고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헤세드)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및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현재 고난 속에서 그 은총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과거의 은총들을 마음에 신실하게 간직하면서 우리는 현재 고난 속에서 기념하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서 현재의 구원의 확신과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잘 직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대하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요나 2장 9절 하반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하면 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건져 주시되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구원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

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경험한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욘 1:17-2:1).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공들의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자백케 하신 후(1:7-10)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11-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을 폭풍 속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15절)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므로 요나를 구원해(건져) 주셨습니다(17절).

과연 요나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을까요? 만일 기대했다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바다에 던진바 되었을 때 지나가는 배를 통하여 저를 건져주시길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배가 니느웨가 아닌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사공들이 저를 보고 바다에서 건져준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또한 다시스로 가는데 어찌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고 스스로 저의 불순종을 합리화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심에 있어서 지나가는 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시사 요나

로 하여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삼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1:17). 이것이 바로 요나가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져 있는 요나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큰 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삼야를 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요나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2:1). 어떻게 그러한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8절).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8절). 요나는 깨닫게 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겸손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2절).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케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케 만드셨습니다. 기도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무능력함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만이요 구원의 소망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케 하셨습니다(9절 하반절).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

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왜”라는 질문과 “무엇”이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며 기대하던 상황으로 날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렸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셨습니까? 마치 요나가 접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느낌이십니까? 아무리 동서남북 주위를 뒤돌아보아도 낙망과 절망이 됩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구원의 은총들을 되새기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여 소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하지 못한 구원의 상황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길 기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큰 물고기에게 명하시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대하지 못했던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구원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한 상황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사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섭리를 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더욱더 경험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길 기원하면서)

요나의 하나님 (6)

[요나 3장 1-10절 말씀 묵상]

제가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섬겼던 새 가정부에서 한 번은 3부(청년부와 새가정부) 예배 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후 자매들은 정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형제들은 족구 시합을 하였습니다. 4팀으로 나뉘어서 시합을 했는데 족구 시합이 치열해 지면서 결국 결승전에 가서는 삼세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기 족구를 하다 보니 치열해 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던 자매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결승전에서 형제들은 족구에 부부관계까지 걸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은 자매의 달로 정하고 미안함 마음으로 주일에 형제들은 아이들을 영아부실에서 돌보고 자매들은 3층 공연실에서 영화구경을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매들이 본 영화가 “청혼”(Bachelor)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남편들에게 맡기고 영화를 본 후기를 사랑 마을 웹사이트에 “사

랑 마을 자매들의 소중한 경험 담”이란 제목아래 글을 한 자매가 올렸는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자매들의 리플이 10개가 안되면 별로였다는 전제 아래 자매들만의 영화 시간은 더 이상 값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남편들이 값을 것 같습니다. 자매들이여 리플을 많이 여기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랑 마을 자매들이 리플을 달았는데 2 자매가 하나씩, 또 다른 2 자매가 리플을 2개씩 또 경험담 글을 올린 당사자 자매가 3개 리플, 도합 9개 리플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편 형제의 리플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참석하지 못했던 자매가 “부러버랑~ 다음에도 꼭 해요!”라고 리플을 달은 후 감사의 글 리플을 달았으므로 자매들의 리플 도합 11개였습니다. 물론 형제 말대로 한 사람의 하나씩 치면 6개 리플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목사가 자매들의 리플 10개를 되면 또 한 번 자매의 달을 갖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다 합치면 11개이지만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인정하게 되면 리플은 도합 6개 밖에 되지 않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사랑 마을 자매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기 족구 해서 이긴 팀은 모르지만 진 3팀 남편 형제들은 돈도 좀 잃고 저번 주일에 아이들까지 2시간 넘도록 보고 또 한 번 자매의 달로 정하고 아내들이 영화 보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가정부 형제들이 부인 자매들에게 또 한 번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기도 자매들끼리 영화 보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엔 기회라 그리 자주 오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에겐 이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하나님 (6)”이란 제목을 걸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 2장에서 요나는 당한 고난을 인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2:1). 그의 기도의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였습니다(9절). 결국 하나님의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사(1절)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10절).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 3장 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말씀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1:2)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점은 처음 일곱개 단어는 똑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다른 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선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반면에(“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의 말씀에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선포(내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바”입니다(3:2).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입니다(4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요나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말씀을 1장 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1장 3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지만 본문 3장 3절에 와서는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닳을 피하여 도망갔었던 요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계명)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였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 3장 3절에 와서는 여호와와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사 그 말씀을 또 주시므로 요나의 심비에 깊이 적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4절).

과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란 메시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40일”은 노아의 홍수(창 7:17; 8:6),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출 24:18), 호렙을 향하여 갔던 엘리야(왕상 19:8) 등등 성경에선 40일이란 기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리라”는 단어의 선택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 21, 25절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2)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란 문구는 더 좋게 변화될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어느 면으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을 때에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멸망되기 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 생각엔 니느웨 백성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회개하던지 아니면 (2) 성읍이 무너져서 멸망하던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가능한 이유를 3절에 나타난 “극히 큰”이란 문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글 성경에는 “극히 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문자적 번역은 “하나님께 큰”(great to God)이란 뜻으로 그 성읍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영어 성경 NIV에서는 “a very important”이라고 쓰여 있음]. 여기서 중요성이란 니느웨가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읍이란 말씀입니다. 와이즈만(Wiseman)이란 학자에 의하면 ‘요나의 니느웨’를 보면 니느웨에는 우상인 나부(Nabu), 앓술(Assur), 아다드(Adad) 그리고 닌으루타(Ninurta), 니느웨의 이슈타르(Ishtar)등 여러 신들에게 헌신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와이즈만).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4)고 “그것을 쳐서 외치”(1:2)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성읍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

였음”으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거룩)를 나타내시며 또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므로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거룩)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였는가?’입니다. 처음 1장 2절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며 2장에 가서는 회개한 후에 구원, 즉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여러 번)(렘 11:7)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어도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후 구원(건지심)의 경험을 한 자에겐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그에게 임할지라도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며(행 2:37) 또한 그 말씀에 “우리(내)가 어찌할꼬”(행 2:37)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회개(행 2:38)가 있으며 그러한 회개한 마음은 또 한 번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한 번 기회를 놓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영어사역에 마크라는 미국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분은 건강 상태가 잘 좋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대 밀워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분이 요번 주 수요일에 갑자기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날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마크 형제가 항상 원했던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전 저랑 세례 준비 성경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요일 그 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동안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며 주님이란 고백을 또 한 번 들었으며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들었기에 목사의 판단에 세례를 주어도 좋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당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영어사역 몇몇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채 마크 형제를 미국에 들여보냈습니다. 과연 저에게 두 번째 세례를 베풀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전 마크 형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기회가 또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마크 형제가 죽기 일주일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에 관하

여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사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명)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위기는 기회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요나 1장 2절, 3장 2절).

요나 선지자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요나 1장 2절과 두 번째 임한 말씀인 요나 3장 2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점은 두 구절 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란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왜(Why)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명령은 무엇(What)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할 이유가 “그(니느웨의) 악독이 내(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1:2)를 말씀해 주는 반면에 두 번째 명령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할 내용이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4)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

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명령들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시 말하면, 만일 요나에게 임한 첫 번째 명령에 니느웨에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기보다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요나에게 임한 첫 번째 명령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3:2)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4절)고 즐겁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앗수르(수도: 니느웨)를 ‘막대기’로 쓰시겠다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애국심을 가졌다면 앗수르의 멸망을 바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바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4절)는 명령을 제일 먼저 받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 주님의 종이였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1:2)에 불순종하여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단련을 받은 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한 후 구원을 받았지만 요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4:2)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착각하고 니느웨로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즐겁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사 선택하시사 그의 일꾼으로 삼으신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한 요나 선지자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나와 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 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혹은 때리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스웨 백성들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 자신의 강판한 마음과 죄악 된 마음이 먼저 무너져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양 떼들의 마음이 무너지길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 목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사 사용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은혜 충만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요나의 하나님 (7)

[요나 3장 5-10절 말씀 묵상]

언젠가 TV를 보다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 김두환 의원을 다룬 드라마가 있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드라마 제목이 “야인시대”였음). 독사와 김두환씨와 싸우는 장면이 끝난 후 그 다음 날인지 자유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그 집회에서 조...박사 전에 나온 한 인물(?)이 연설을 우렁차게 하는 것을 보고 저희 집 둘째 예리가 오빠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좀 놀란 듯 TV에 시선을 멈추더니 하는 말 ‘아빠도 시끄럽게 하자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여기고 있던 저에게 사랑하는 첫째 딜런이 제가 의아한 모습을 눈치 챈 듯 여동생의 말에 해석을 달아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빠, preaching(설교)할 때 시끄럽게 하자나요’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저의 설교를 마치 울리는 팽과리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에게 ‘설교란 감화력’(설교의 능력/성령의 역사)이라고 배웠는데 저의 설교가 제 아이들에게는 감

화는 둘째 치고 ‘시끄럽다’라고 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아주 가까운 어르신 선배 목사님에게 ‘교만하다’는 쓴 소리를 듣고 가까운 동역자도 제가 교만함을 동의하는 말을 내비쳤습니다. 한 마디로 ‘시끄러운 설교’와 ‘교만한 인격’, 결국 설교와 인격에 대한 쓴 소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구약의 용어로는 “나감”(뉘우친다)과 “슈브”(돌아선다)라는 단어가 있고 신약의 용어로는 “메타노이아”(마음의 변화)와 “에피스트로페”(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곧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행동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인터넷).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첫째는, 지성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곧 죄에 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 둘째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곧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건의 비애입니다. 또 죄에 대한 통곡도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9-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

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 시편 51편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3) 셋째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목적의 변화입니다. 곧 죄에서 떠나려는 내적 전환 사죄와 성결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 누가복음 15장 18-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 3장 5-10절 중심으로 “요나의 하나님 (7)”란 제목을 걸고 요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5-9절), (2)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절).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배를 입은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사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인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라”(4절)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인 회개를 한 3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불순종한 요나, 도망가는 요나, 죄를 숨기다가 제비뽑기에서 비신자 사공들에게 죄가 들어난 요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도 비신자 사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사공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이미 목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선포케 하시므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2)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배를 입은지라.”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회개의 싸인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행동은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lit. ‘그 메시지가 니느웨 왕의 마음에 감동(영향)을 주므로’]을 보면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6절). 이것은 니느웨 왕이 자기 스스로 낮추는 공적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극도의 불편은 하나님의 교정(수정)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볼드윈).

(3) 그들은 힘써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은 조소를 내려 니느웨 백성들과 그들에게 종속된 짐승들까지도 금식할 것을 선포한 후 백성들에게 힘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8절하).

언젠가 주일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반에서 제 자신의 부족한 죄를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죄를 범한 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다면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서도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사죄의 확산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괴로움 속에서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화요일 새벽기도 때에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8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10절).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가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로 시작하여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저와 여러분보다 율법을 더욱더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우리 보다 더욱더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 즉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마3:10)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위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의 열매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 방법,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소극적 방법의 열매는 곧 변상이니 이전에 지은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할 때에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눅19:8).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너를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네가 호리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 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마5:23-26). 우리가 사람으로 혐의가 있거든 풀어 주어야 하고 물질로 잘못된 것은 물질로 해결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소극적 열매입니다.

(2) 적극적 방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빌 1:11)이니 그 생활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세마포(계19:8)를 짜는 생활이니 정성으로 흠과 티와 주름잡힘이 없이 깨끗하고 화려하게 짜야 할 것입니다(인터넷).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금식이나 베옷을 입는 것으로 맺어진 의식주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회개 운동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2) 그들의 금식이 그들을 멸망의 위험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변화된 생활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과 화해 되시게 하였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을 그 요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만 금식하지 말고 눈도 귀도 손도 발도 금식에 합당한 행위에 참여해야 합니다(박운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여 도망가던 요나를 돌이키시사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3가지 반응은 (1)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5절), (2) 둘째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를 입었습니다(5절). 그리고 (3) 셋째로, 그들은 힘써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8절). 과연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드렸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진정한 회개 했는지 알기 위해선 8절에서 10절까지 4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8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9절), “...그 진노를 그치사...”(9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10절).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옛 삶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8, 10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입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처럼 “재앙”(1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행동이 변화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길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고자 하신 징계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를 향하신 징계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요나 3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들춰질 때에 죄책감에 허덕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으로 허덕이면서 종종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낙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보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것이나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는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한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이끌림을 받아 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

며 오히려 옛 사람의 죄악 된 본능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또한 죄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 주님. 동의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서도 또 동일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잠26:11) 우리는 자백한 죄를 또 다시 범하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가 범한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죄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좋아하는 죄를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죄악 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사실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듣고(4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었습니다(5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을 때 그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

에 앉았습니다(6절). 그리고는 니느웨 왕은 그의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7-8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들로 멸망치 않게 하시지 않을 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9절). 결국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범한 죄를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0절).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왜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못하는가 생각해 볼 때 2가지가 생각났습니다.

(1) 첫째로, 저는 제 자신이 죄를 범한 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많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핍돼 있다는 증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조금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계시면서도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는 죄인을 때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롬2:4).

(2)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보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행한 것 죄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 때리시기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제 마음을 녹이시사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아버님에게 징계를 매를 맞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두어 번 아버님께 매를 맞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때 아버님께 매를 맞을 때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방황하면서 죄를 짓고 다녔을 때 제 아버님은 매를 들어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새벽 3시 경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거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막대기를 징계를 받았던 것보다 방황하는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히려 제 양심을 찢렸고 저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웬지 제 아버지의 징계의 막대기보다 그 분의 기도의 무릎이 저로 하여금 저의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실 때에 징계의 막대기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

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또 짓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내려놓으므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회개하라 내 영혼아!)

요나의 하나님 (8)

[요나 4장 1-11절 말씀 묵상]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그의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 책 7장에서 “영성 개발과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말들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세 가지 귀한 교훈과 적용이 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첫 번째 교훈과 적용의 말: “격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라도 우리는 이성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감정(feeling)보다 사실(fact), 즉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the Word-driven)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란 한 마디로 믿음의 삶(life of faith)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교훈과 적용의 말: “자제력이란, 설사 ‘기분 내키지 않아도’ 자신이 선택하거나 결단한 행동과 인격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다스리는 지속적 능력을 말한다. 내키지 않는 (또는 하기 싫은) 일도 필요하다면 하고, 하고 싶은(기분 내키는) 일도 필요하다면 단호히 하지 않는 것이 자제력이다. 견고한 성품이 없는 이들에게 감정은 자제력의 치명적 적이다.” “견고한 성품이 없는 이들에게 감정은 자제력의 치명적 적이다”이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므로 말씀 인격화 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다시 말하면 자제력을 잃어) 내키지 않는 일은 안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

(3) 마지막 세 번째 교훈과 적용의 말: “오늘 사탄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는 감정을 우리 삶에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며, 특정 감정이 있거나 없는 것에 대해 엉뚱한 죄책감을 대거 유발시킨다.”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감정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감정을 우리의 행동이나 성품 변화의 기초로 삼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 기초는 진리에 대한 통찰과 이해와 확신의 묶인데 말입니다. 예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보다 필요의 감정에 떠밀려 헌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1-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이끌림을 받는 ‘성내는 요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3절), “...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8

절 하반절).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화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4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9절 상반절). 오늘 저는 “요나의 하나님 (8)”란 제목 아래 성내는 요나에게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욘4:1-4).

요나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임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3:4). 그리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5절). 성경은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9절).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10절). 그랬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떠한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는 심히 싫어하였고 또한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선지자가 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었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지 어떻게 싫어하고 분노할 수 있을까?’ 웬지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지지는커녕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말미암아 요나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예로보함 2세 시대 때(782/781-753 BC)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때 상황은 이스라엘 앗수르란 거대한 나라의 종으로써 그 나라에 돈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예로보함 2세 시대 때에는 앗수르에 대한 반항이 아주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나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지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분노한 상태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1:2)에 왜 불순종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인 다시스로 갔다는 변명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돌이키실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요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요나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나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을까 이해가 안됩니다. 웬지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미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중 2절 말씀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나 자신도 회개하였을 때(2:2-7)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9-10절)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 죽고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자기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원수라해도 회개하고 돌이켜 재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의 기도를 드리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념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4:4). 과연 요나의 노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만일 요나가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자기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요나가 진정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크신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정도로 성념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만나 뵈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체험하였다면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정도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웬지 요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니스웨 백성들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을 때 결코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2절). 한 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뜻, 곧 니스웨 백성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의 종 요나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니스웨가 멸망받기를 원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요나의 하나님은 니스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7장 -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시102:26-27).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약1:17). 또한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사40:6-8).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들과 행동 원리들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그분의 성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습니다(민23:19).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혹은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요나 3장10절 외에도 창세기 6장6-7절(“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무엘상 15장 11절(“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사무엘하 24장 16절(“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요엘 2장13-14절(“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의 계획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2)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선견지명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선견지명을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처럼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니스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니스웨를 멸망시키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스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뜻, 곧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원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멸망시키시려는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요엘 2장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회개 기도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

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거룩한 뜻)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받아주십니다(사랑의 뜻)(패커). 이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욘4:5-8).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사 니느웨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므로 싫어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그는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5절).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을 때 가는 니느웨 성 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5절에서 그가 동편에다 초막을 지는 것을 보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니느웨 성 서편에서 초막을 짓지 않고 동편에 초막을 지었습니까? 그 이유는 요나는 그 초막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5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분노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준

비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1) 첫째는, 박 넝쿨(a vine)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시니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던대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요나에게 박 넝쿨을 공급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므로 그의 괴로움을 면케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6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나는 초막을 준비했어도 해가 짹짹 비취는 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면케 하시려고 요나를 위하여 박 넝쿨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도 인정 안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요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요나에게 박 넝쿨을 준비하시니 그의 괴로움을 면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상상해 봅시다. 과연 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요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준비해 주시므로 그늘 속에서 괴로움이 면케 되자 심히 기뻐하였습니다(6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믿은 사실에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박 넝쿨로 인하여 괴로움이 면케 되자 심히 기뻐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되면 화내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 기

빠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2) 둘째로, “벌레”(a worm)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라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제가 다녔던 풀러 신학교에는 벤 엔겐(Van Engen)란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가르치시는 과목을 택하여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 학생들에게 성경책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이 있다고 하시면서 소개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질 브리스코(Jill Briscoe)의 “요나와 꼬마벌레”(Jonah & The Worm)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순종한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벌레와 대조를 이루면서 순종하는 벌레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레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니스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 넝쿨을 씹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느린 발걸음으로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벌레의 모습은 웬지 요나의 모습과 대조적이란 느낌을 줍니다. 요나를 위해서 박 넝쿨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젠 벌레를 준비하시라 박 넝쿨을 씹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박 넝쿨은 시들게 되었습니다(7절). 박 넝쿨이 시들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늘(요나에게 있어서 편안함)이 없어졌다는 것과 괴로움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3) 셋째로, “뜨거운 동풍”(a scorching east wind)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8절을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

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안 그래도 박 넝쿨이 없어져서 요나는 괴로워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젠 뜨거운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요나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나 1장 4절에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대풍”을 준비하시라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 요나 4장 8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라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죽고 싶은 정도까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7절에서 벌레가 박 넝쿨을 씹었을 때 거기서 “씹게”(chewed)란 단어가 8절에 나오는 “쬐매”(blazed)란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레나 동풍 둘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나를 치신 것을 말해 줍니다. 성경 에스겔 7장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의 자녀들을 치시는(strike)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시매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욘4:8).

셋째로, 요나의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욘4:9-11).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나 4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씀의 요나의 대답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9절 하반절)였습니다. 아마

도 이젠 요나는 화가 나도 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까? 바로 없어진 박 넝쿨 때문이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박 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하다가(6절) 이렇게 박 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9절)이 우습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아끼는 박 넝쿨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끼는 박 넝쿨과 하나님 자신이 아끼시는 니느웨 영혼들과 대조를 하셨습니다. 요나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수명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박 넝쿨을 아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수고하신 니느웨 영혼들, 배양한 니느웨 영혼들, 수명이 이 땅에서 짧은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아끼는 박 넝쿨이 없어지므로 말미암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십 이만 여명의 영혼들과 많은 육축을 아끼시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서를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상하게도 요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인 박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니느웨 영혼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아끼고 계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종종 마음속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십 이만 여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는가 아니면 한 하나님의 종 요나를 더 사랑하셨는가?’. 죄를 금식까지 해가면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 이들과 대조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듯하나 또 다시 죄를 범한 후 회개치 아니하는 요나, 감히 하나님께 성내어 죽기까지 화를 내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격을 닮아가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순종하는 요나,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련하고 불순종하는 종 요나를 니느웨의 십 이만 여명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나는 그 이름 뜻처럼 미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지 못한 모습과 원수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빌2:8).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막15:34)라고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향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준비해 놓으셨던 것은 바로 저주의 나무 십자가였습니다(신21:23, 갈3:13).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돌이키시고, 준비하시며 또한 아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요나 선지자

“(그러나)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니이다”(요나 4장 1-3절).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는 이성보다 감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감정적이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 마디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성주의입니다. 저는 이 감성주의의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크게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우리의 이성에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견고한 성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Fact)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Faith) 안에서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그저 감정(Feeling)에만 이끌림을 받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른 교훈(sound doctrine)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불안정한 느낌(unsound emotion)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보다 우리의 마음은 우왕좌왕하면서 변질될 위험이 많습니다. 어떻게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져 신앙의 정도를 견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요나 4장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를 생각할 때 한 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였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란 줄은 알았지만(2절) 자기 자신은 심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1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줄은 알았지만(2절) 자기 자신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멸망당하기를 심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1-3절)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였습니다(5절). 요나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시키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분노 가운데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사 다시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시길 니느웨 성읍 동편 초막에 앉아 기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의 마음은 이성에서 이끌림을 받기보다 감정에 이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고(2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하는 감정(3절)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1절)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러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그로 하여금 원수 나라 앗수르의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1:1-3)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를 한 후(2:1-9)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했건만 요나가 누구기에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갔다가 회개한 후 용서를 받은 요나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십 이만 명이나 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셨는데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그 영혼들을 아끼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기도했습니다(1-3절). 과연 그의 성냄이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 하심과 크신 인애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변질된 종이였습니다. 그는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

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지만 그는 그 이성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이끌림을 받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2-3절)와 행동을 하였습니다(5절). 한 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그의 종 요나를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의 성념이 합당하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요나에게(9절)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2절) 사랑하기를 속히 하셨습니다(3-11절). 웬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십이만여명과 많은 육축보다 자신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종 요나 한 사람을 더 아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우리를 아끼시사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
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빌1:8)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로 세움 받
길 기원하면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요나 4장 4절).

과연 우리의 성냄이 합당합니까?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화낼만한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짜증을 낼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저는 사람들에게서 ‘짜증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이 세상엔 참으로 성낼 일들 너무 많습니다. 웬지 분노가 폭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만족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만족이 없기에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성내고 있습니다. 그가 성내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

앙을 내리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3:2-3) 듣고 회개하므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므로 말미암아(10절)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10절). 그러므로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4:1). 이러한 성냄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분노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분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이다”(2-3절). 이 요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1:2) 란 말씀이 자기에게 처음에 임했을 때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불순종의 이유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요나는 하나님께 심히 분노 하는 가운데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요나의 성냄이 합당한 것이었습니까?(4:4).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계명에(3:2-3) 순종했던 니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데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시자 심히 성낸 요나, 과연 그의 성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까? 요나는 심히 분노한 가운데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앞되 거기

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였습니다(5절). 이렇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시므로 요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면케 하셨습니다(6절). 그 때 요나는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습니다(6절). 이 얼마나 대조적인 요나의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던 요나(1절)가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준비해 주시사 요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면케 해주시니깐 그는 심히 기뻐하였습니다(6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2절)와 거리가 먼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자신은 편안해야 하고 말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였고(7절) 또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사 요나의 머리에 쪼게 하셨습니다(8절). 그 때 요나는 혼곤하여 분노 가운데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8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읍이 어찌 합당하냐”고 물으셨습니다(9절). 요나의 대답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였습니다(9절). 요나가 죽기까지 성난 이유는 자기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 넝쿨을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10절).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십 이만 여명을 아꼈거든(11절) 요나는 그 죽어가는 십 이만 여명의 영혼들보다 자기의 괴로움을 면케 해주는 박 넝쿨을 아꼈던 것입니다. 과연 요나의 성냄은 합당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욘4:4). 과연 우리의 성냄이 합당합니까? 우리 자신

의 눈으로 볼 때에 죽기까지 합당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히 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십 이만 여명의 영혼들이 망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괴로움을 면케 해주는 박 넝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끼시는 영혼을 아끼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길 기원하면서)

“하나님, 벌레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라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요
나 4장 7절).

하나님,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목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로 가지 않고 도망가는 목사가 되지 말게 하옵
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여 퇴보하는 목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지 않는 목
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벌레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로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목사가 되게 하
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벌레처럼 느릴지라도 걸어갈 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만을 바라보면서 거북이처럼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요6:1-15, 마16:18)에 이끌림을 받기
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을 꿈꾸면서 앞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박 넝쿨을 씹으라’고 명하실지라도 그 명령만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눈물로
잘 먹이길 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요나와 같은 목사,

제임스 김 나눔

(벌레 같이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길 기원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주님의 종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나 4장 10-1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고자 준비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는 바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등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고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평신도 보다 못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보다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 등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교만해 졌을 뿐만 아니라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신학교에서 머리는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식에 변화는 있었는데 마음의 변화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기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라도 준비되지 못한 목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머리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욘4:2) 요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은혜롭지 못했으며 자비롭지 못했고 또한 그는 성을 냈으며 인애가 결핍되어서 니느웨를 향한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다? 바로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3:4).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1절)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2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4절).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고(5절)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8절). 그리고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8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0절). 그러나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4:1).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던 것입니다(5절). 혹시나 자기가 선포한대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지 않을까(3:4)해서 요나 선지자는 니스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4:5). 아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의 종 요나가 무엇이관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가 무엇이관대 성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2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3절)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간구를 아뢰 수 있습니까? 참으로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내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박넝쿨(6절)과 벌레(7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8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한 요나 선지자에게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스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십이만여 명과 많은 가축도 아끼시는 마음입니다(11절).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리 버린 박넝쿨을 아낀 반면에(10절) 하나님께서는 니스웨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아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그들을 지게 하여 자기의 괴로움을 면하게 한 박넝쿨(6절)을 더 아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요나 선지자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서(6절) 하나님께서 니스웨 사람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깐 심히 싫어하고 성낼 수가 있습니까?(1절)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주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심히 아끼시사 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십니다. 비록 여러모로 준비가 안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시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시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만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늘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새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준비시키시는 손길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결론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미련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어나...가서...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어나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8:19, 행16:10). 저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은 목사인 저는 제 책임을 회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사 삶의 역경과 심지어 위기까지도 겪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주시사 다시금 비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생각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저의 죄를 들춰내시사 저의 죄를 비신자들 앞에서도 자백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

정 속에서도 저로 하여금 비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비신자들을 통하여 저의 죄를 들춰내시고, 저의 죄를 그들에게 자백케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가운데 저의 마음의 깨트리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한 깨트림 속에서 비록 제가 고난을 당하되 소망이 끊어져 갈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시되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케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그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고통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저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저는 요나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은 4:2).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고 싶습니다. 별레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종으로 불렀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별레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저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한 영혼,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받길 기원하면서)

요나의하나님, 나의하나님

지 은 이 James Kim

편 집 손사라